

문 (요한복음 10:1-10)

오늘은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이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의 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승리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 없다. 답 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문이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떳게 하면 응답이 지속될까? 또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면 성공이라고 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자들도 여기에 많이 길들여져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있고 성공한 인생인가? 중요하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의 생각이다. 세상 기준이고, 주로 창세기 3, 6, 11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성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간단한 것 같은데, 자주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권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중에 세상을 종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뜻은 237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이거 하나 있다. 피부, 색깔, 문화, 이런 것 따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구원하고 저 나라는 안하고 그런거 없다. 모두 다 한다. 그래서 내 민족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누구든지 평생을 해도 내 민족 하나 못 살린다. 그런데 내 민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 살리겠다? 그건 틀렸다. 처음부터 다른 민족과 함께 살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237 사상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랬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후에 후손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민족과 고향을 떠나야 했다.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민족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다. 자기 민족만의 아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다. 대를 이어 해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를 계속 키워야 한다. 우리의 사상이 여기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른데로 가면 안된다. 여기에 맞아야 한다. 그래야 응답 받는다. 그래야 인생 살아난다. 그래야 내가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의미있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 각자의 민족을 당연히 생각해야 하고 살려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반만 알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한다. 평생을 들어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 때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는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자녀교육도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한다.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반만 행한 것이다. 사업이 237 되어야 한다. 직장도, 자녀교육도 237 되어야 한다.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237이라고 답이 나와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가는 경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경제를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이 통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제를 237에 맞추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성경이다. 마태복음 6:33, 너는 너의 경제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지금 벌고 있는 돈을 전부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내 가족도 살려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니가 이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이다. 니 사업 안에 내가 있느냐는 것이다. 니 직장 안에, 니 인생안에, 니

공부안에 내가 있느냐는 것이다. 237은 하나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어지고 정복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237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내 경제를 정복하는 답이다. 이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매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던지 내 속에 237이 나와지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부담없이, 당연하게 237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많은 분들이 아예 237 생각 없이 살수도 있다. 메시지를 자주 들으니 237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수 있다.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마음만 바뀌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다. 마음이 바뀌면 돈도 바뀔수 있도록 돈을 주실 것이다. 이게 과정이다. 마음도 안 바뀌는데 억지로 하는 헌금을 보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하면 237이 부담되면 헌금하지 말아라. 부담이 되어져도 헌금을 하면 그게 헌금이 된다. 그런데 지속이 안되고 그러면 그런 헌금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돈 없어도 모든 것 다 하신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돈 없어도 하나님은 영혼구원 다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구원된다. 안될게 없다. 그래도 돈이 필요한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하니까, 그 때에 우리가 정말 답 나서 기쁘게 행복하게 헌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다. 237 사상이 되라는 말이다. 그러면 온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교에 대해서 전부 헌금하고 나서도 교회에 꼭 차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확실히 믿고 사는 것 어떤가? 정말 증거 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1. 눈

이런 놀라운 237사상과 마음껏 헌금하고도 얼마든지 남아있는 경제를 위한 문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양들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양이다. 9절에도 내가 문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다. 우리 모든 것의 문이다. 우리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될 문이 없다. 인생의 문이고 응답의 문이다.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다른 문은 없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문에서 키워야 한다. 전도와 선교, 237, 치유의 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문이 그리스도이다.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문도 그리스도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끝났다. 그러면 해가 뜰 이유가 없다. 그 때는 다른 빛이 온다. 2절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 했다. 1절에 보면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다. 사단이 이런 짓을 한다. 사단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도둑질을 할 수 밖에 없다. 담뿍어 넘어 다니는 것이다. 3절에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고 하셨다. 구원은 1대 1이라는 말이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 아들이 세계 최고의 목자라고 해서 부모는 공짜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항상 개인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4절에 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다. 자동이다. 예수님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5절에는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고 했다. 사단이니까.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다. 나를 통해 구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꼴을 얻는다는 것이다. 구원 뿐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약속했다는 말이다. 10절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9절과 같은 뜻이다. 양이 생명을 얻

게 하는 구원을 나를 통하여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많이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깊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받는다는 것이다. 성경에 영적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은 다 이랬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단어는 '단'이다. 아주 거부가 되었다. 아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로이다. 마침내 거부가 된다. 또 렘넌트 7명 다 봐도 전부다 아주 승리하고 성공했다. 요셉은 애굽나라의 총리다. 그러면 꼴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얻는것에 대해서 더 설명이 필요 없다. 다니엘은 왕이 네 번이나 바뀌어도 계속 총리는 지가 했다. 어떤 분들은 사도바울보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바울이 복음전하는데 경계가 부족해 못하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 나같은 돈 하나도 없어도 나 사도바울 시켜주라면 그거 하겠다.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는가? 이 복음운동이 300년 내려갔다. 그것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24가 안되서 얼마나 고민인가? 은혜를 주시면 바로 되어서인데, 사도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어떤것과도 바꿀 생각 없다.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문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문으로 받아야 한다. 다른 것을 문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 바뀌야 한다. 알게 모르게 다른 것을 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건 틀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내 경계의 문, 그리스도이다. 내 인생, 자녀, 미래의 문,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안되어지는 분은 생각 바꾸라. 이것이 완전하게 되어야 하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약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잡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빛이다. 세상에 빛을 비쳤는데, 그리스도이다. 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7일째 되는날 다 만드시고 쉬었다고 하였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러 쉬신 것이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 그런데 일부러 쉬셨다. 그 외에도 짝 찼다. 창세기 3장, 이제 원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표현했다. 여자의 후손인데,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임시로 쓸수 있는 언약을 설명했다. 창 3:21 회생제사. 이것이 계속 내려간다. 이게 창세기 4장 주제, 이 약속의 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니 기도와 예배를 받겠다.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단, 출애굽날의 저녁 약속의 피,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막 만들라 했다. 성막 자체, 그리스도를 상징,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지난주에, 속죄소. 그리고 세 절기, 전부다 그리스도 상징한다. 그 외에 가득 찼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흘려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잡아야 하고 그게 우리 인생 모든 것의 문이다. 이 모든 다양한 단어들로 설명했는데, 그 하나하나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있다. 이 단어들 중 하나만 잡아도, 다른 것 없어도 능력과 권세의 인생 살 수 있다. 지지만주에 나왔는데, 날때부터 맹인이었어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아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만나서 그렇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되나? 안된다. 다른 사람은 이거 고칠려고 울고 불고 날뛰어도 안된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된다. 가서 씻고 와라. 그러면 끝이다. 이게 우리의 문이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단어 중에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나면 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문으로 받아야 한다. 완전한 문으로 받아야 한다. 영원한 문으로 받아야 한다. 이만한 다른 문은 없다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 완전한 문이기 때문에 이문 저문 양다리 걸치는 그런 문이 아니다. 이거 진짜 언약 되도록 오직 예수이다.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고 이것에

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이것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한 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끝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다. 이 문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는게 아니다. 문제와 관계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끝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문으로 받고 예수님을 문으로 잡으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거 잡고 있으면 문 열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무슨 다른 방법이 아니다. 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으로 잡습니다. 문 열어 주세요. 거기서 버티고 다른 곳으로 안 가는 것이다. 내 생각이나 신앙고백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잡아보시기 바란다. 대부분 예수님 믿고 그냥 있는다. 우리는 진짜 은혜로,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런데 아직도 예사로 생각하고 언약으로 잡으라는 소리가 그냥 지나간다. 진짜 잡고 움직이지 말고 진짜 해봐라. 안되면 하나님 왜 안되냐고 기도하면 된다. 다른 기도제목 필요 없다. 이게 되어지면 끝이다. 예수님이 문이면 끝이 아닌가? 내 인생의 문이고, 내 문제의 문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의 문이라고 하였다. 문도 열리지 않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마 다 깨지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이런 일 없다. 나는 아직까지는 완전 증인은 아니다. 부족한 것 많다. 그래도 나는 증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슨 증인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 잡으면 문 열린다는 것의 증인이다. 이 길을 가야 한다. 안 되도 이 길을 가야 하고 죽어도 여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증인이 많이 있고, 우리 교단에도 많이 있고 교회 사에도 많이 있다. 저도 그 중에 부족하지만 증인중의 한 사람이다. 나도 길 자리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인생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는가? 예수님을 문으로 잡을 때 열리는 문이어야 진짜 문이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을 열수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 문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이야기 했다. 나는 너의 문이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받고 고백해야 한다. 주님은 나의 문입니다. 내 인생의 문이고, 문제 해결의 문이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문이기 때문에 닫혔던 문이 열릴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인생이 지속될 것이다. 해보면 된다. 안해서 그렇다. 듣고 끝내서 그렇다. 해보면 된다. 그래서 정말 공짜같은 인생을 살고 공짜로 끝나는게 아니고 정복해야 한다. 제일 먼저 나를 정복해야 한다. 창세기 3장, 내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전부 내것이다. 이걸 잡으니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다. 딱 잡고 있다가 조금 현금해. 그러니 사단에게 당한다. 사실은 확 다 해도 죽지 않는다. 관찮은데 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정복되고 내 인생이 정복되어야 한다. 내가 해방을 누리고 내가 울무된, 노예된 모든 곳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치유되고 결국 증인된다. 내 맘대로는 안된다. 나도 내 맘대로는 안된다. 그러나 뒤돌아 보면 많은 것이 되어 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뒤돌아 보면 많은 것이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이다.

11절을 보면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 샅군목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가? 선한 목자이다. 샅군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거짓말 안한다는 것이다. 오늘 뭐라고 했는가? 내가 니 인생의 문이다. 다른데는 문 없어. 내가 문이야. 니가 이 문으로 들어오면 진짜 내가 니 문 된다니까? 너를 구원하는 문, 이 정도가 아니야. 들어오며 나가며 많은 꿈을 얻을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지만 생명만 주고 끝까지 않아. 니 인생의 문이야. 너의 문제의 문이니까 문제가 있을때마다 니가 나에게 와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언약이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문이라는 언약으로 승리하기 바란다.